

#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자연 인식\*

곽 경 숙 (광주대)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속신과 전근대적 자연관      |
| II.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양상 | 3. 생태학적 상상력의 문학적 형상화 |
| 1. 기차와 근대적 자연관            | III. 결 론             |

## I. 서론

생태·환경 문제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생태문제는 이제 소수 계층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중심 문제가 되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 해수면 상승, 열대림 파괴, 바다 생물의 초토화 현상 등 환경 폐해로 인한 생존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생태계의 대재난에 직면함으로써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며 문학 분야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환경 위기를 강조하고 생태의식의 확산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두된 생태문학이나 생태문학론은 문학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하지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생태문학이나 문학론은 서구의 생태 이론에 의존하여 우리의 전통 사상과 단절된 채 생태의식의 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서구 개발 선진국의 문제가 뒤늦게 우리현실에 나타났고, 이런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3-AS1519).

현실을 해석하고 극복하는 방편으로서의 서구 이론이 우리 문학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서구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을 점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생태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평등성, 이를 전체로서 아우르는 일원론적 세계관 등이 이미 우리 문학의 전통 속에 자리하고 있던 사유라는 데 있다.<sup>1)</sup> 그렇다면 최근의 생태적 가치의 확산은 근대 지향 100년간 우리의 삶과 문학 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던 것을 외부적 충격에 의해 재발견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서구 이론에 기대어 생태문학의 범주를 근대화 이후 환경 피해를 고발한 작품부터 최근에 활발하게 발표되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까지로 한정하는 점은 분명 문제를 지닌다. 서구의 근대적 방법론이 우리 문학 연구에 도움을 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써 우리 문학의 계기성이 무시되고 근대와 전근대로 분리된 채 연구되는 폐해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한국 문학 100년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 작업은 근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문학 속에 용해되어 유지되어 온 우리의 전통적 사유의 흐름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것은 올바른 생태문학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한국 문학사를 계기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연구되었거나, 정치·사회적 상황 논리에 의해 평가가 보류되거나 경시되었던 작품들을 생태적 관점에서 발굴·정리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문학의 연속성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본고는 우선 개화기 소설을 생태적 관점에서 고찰하려 한다. 개화기는 전근대와 근대의 접점이 되므로 한국문학사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갑오경장을 전후로 해서 3·1운동까지를 지칭하는 개화기는 오랜 세월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면서 서구의 문화와 문물이 폭주되던 시기이다. 당시 선각자들은 근대 지향을 중심 이념으로 하여 우리의 것을 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조수처럼 휩쓸려 들어온 서구 사조는 이질적인 외래 사조를 동화 섭취할 수 있는 태세를 미처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새로운 사조를 거부 배척하려는 계층이 훨씬 우세하였던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고 폭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동적인 외래사조의 접촉은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경이적인 일대 변혁을 가져”<sup>2)</sup>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1) 광경숙,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학적 연구」(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1), 27-34쪽 참조.

전통적 사유는 근대적 세계관과 충돌함으로써 변형되거나 굴절되기도 하며 일부는 무의식 속으로 내밀화되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개화기에 나타난 변모 양상은 100여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문학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반 대중은 다양한 모습으로 유입된 서구의 근대 문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점차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는지, 또 갈수록 본격화하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사유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개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관점에서 개화기를 고찰하려고 할 때 논의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인식, 곧 자연관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자연관에 초점을 맞추어 개화기에 창작된 소설을 고찰할 것이다.<sup>3)</sup> 근대적 자연관과는 상이한 전통적 자연관이 근대와 접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어 가는지 살피는 한편, 당대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의 양상을 찾아볼 것이다.

## II.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양상

### 1. 기차와 근대적 자연관

이 시기 근대의 상징으로서 자연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매체가 기차이다. 기차가 지닌 매력은 무엇보다 자연의 질서를 가로지르는 속도에 있다. 기차는 산 넘고 물을 건너며 오랜 시간 걸려야 할 수 있던 곳을 단숨에 도착하게 하는 신기하고 경이로운 물체였다. 이 시기 소설에는 기차가 지닌 속도감에 대한 경탄이 여러 군데 드러나 있다.

부인이 기차 창문을 의지하여 초연히 내다보니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없던 산이 생기기도 하여 천태만상이 번개같이 달려가니 혼잣말로, “에그 빠르게도 간다 그 동안에 벌써 얼마를 왔는지 저기 저 산이 어느 겨를에 아득히 보이네”<sup>4)</sup>

2) 전광용, 『신소설연구』(새문사, 1986), 9쪽.

3) 본고는 개화기에 등장한 소설 중 ‘신소설’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소설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소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신소설 중에서도 번역이나 번안한 소설은 제외하고 순수 창작된 소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현대어로 표기되어 나온 신소설전집을 고찰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4) 이해조, 『홍도화』, 『한국신소설전집 4』(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20쪽.

“인력거에서 급히 내려 동경까지 가는 연락 차표를 사 가지고 이등열차에 오르니 호각 소리가 ‘호르륵’ 나며 기관차에서 ‘파 푸 파 푸’하고 남대문이 점점 멀어지니 앞 길에 운산은 창창하고 차 뒤에 연하는 막막하더라. 그 빠른 차가 밤새도록 가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대문 밖도 자세히 모르고 지내던 정임이는 처음 이렇게 멀리 온 티이라.”<sup>5)</sup>

1899년 9월 18일 한국 최초로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경의선, 경부선 등이 개통되면서 기차의 모습은 전국 각지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평음을 내며 질주하는 기차를 보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인간들은 이성의 힘에 주목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장애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자연은 도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기차에 의해 전국이 하루거리로 들어오고, 세계일주가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과학적 이성이 지닌 위력에 압도당함으로써 전통적 자연관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강동지는 김승지 부인을 죽이고 침모의 집에 가던 그날 새벽에 그 마누라를 데리고 남문 밖 정거장 앞에 가 앉았다가, 경부 철로 첫 기차 떠나는 것을 기다려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서 원산 가는 배를 타고 함경도로 내려가더니 며칠 후에 해삼위로 갔다는데 종적을 알 수 없더라.<sup>6)</sup>

‘에라 내가 세상에 났다가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이 한 몸이 이 세상에 없는 셈치고 세계 주유나 하여 천하 각지의 인물, 풍경이나 구경하고 울적한 암회나 소창하며 창창한 전도를 소견법으로 보내리라’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나서 그 시로 금전을 준비하고 행장을 단속한 후, 그여 허락을 얻어 가지고 남대문 정거장에서 서관차를 타고 전 지구 일 주유를 먼 길을 떠나는데, 그 노모와 영자는 전별을 하는지라.<sup>7)</sup>

기차가 가져온 최대의 성과는 사물을 보는 시야를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바깥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면서 나무 틈에 묻혀 나무만을 보느라고 보지 못했던 숲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가능해진 것이다.

옥순과 옥남이가 부산에 이르러서 경부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여 오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소리 없는 눈물이 비 오듯 한다. 토피 벗은 자산에 사태가 길길이 난 것

5) 최찬식, 「추월색」, 『한국신소설전집 7』(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2-23쪽.

6) 이인직, 「귀의 성(하)」, 『한국신소설전집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49쪽.

7) 최찬식, 「안의성」, 『한국신소설전집 7』(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53쪽.

을 보면 ‘저 산의 토피를 누구들이 저렇게 몹시 벗겨 먹었누?’ 하며 옛일 생각도 나고, ‘저 산이 언제나 수목이 울밀하게 될꼬?’ 하며 앞일 생각도 한다. 산 밑 들 가운데 길가에 게딱지같이 납작한 집을 보면 저것도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은 마음이 든다. 옥순의 남매가 어렸을 때에 그런 것을 보고 자라났지마는 처음 보는 것같이 기막히는 마음뿐이라.<sup>8)</sup>

창 밖으로 전개되는 풍경을 통해 예전에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국지적인 것들에 가려져 모호했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국토는 험벗었고 우리 민족은 토피를 벗겨먹으며 살아야 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창문에 의해 ‘낯설게 하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민족의 삶이 “게딱지 같이 납작한 집”이라는 객관적 실체로 요약되어 선명하게 부각된다. 기차는 당대 우리 민족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마차를 타고 막막한 광야로도 가고, 기차를 타고 화려 장대한 시가도 지나가고 화륜선을 타고 망망한 바다로도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기차를 내리매 땅에는 철로가 빈틈없이 놓이고, 하늘에는 전선이 거미줄같이 얽혔으며, 넓고 넓은 길에 마차, 자동차, 자전거는 여기서도 쓰르르 저기서도 딸딸하고 십여 층 벽돌집은 좌우에 쟁영하여 각색 공자의 연기 굴뚝은 밀짚 들어서듯 총총하여 그 굉장한 풍물이 영창의 눈을 놀래니 그 곳은 영국 서울 런던이요, 스미트의 집이 곧 그 곳이라.”<sup>9)</sup>

기차는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과학적 이성이 거두어 올린 산업혁명이라는 쾌거에 있다. 이 글에서 영국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공간으로 제시된다.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근대의 세계로 도배된 이곳은 과학적 이성에 의해 기계를 등장시킴으로써 인간의 우월성을 입증한 곳이다.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토피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의 본산지이다. 영국 서울 런던 거리를 바라보는 ‘영창’의 경이로운 시선은 기차를 통해 근대의 위력을 경험한 우리 민족의 시선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불가항력을 가로지르는 기차의 위용 이면에서는 반생명적인 국토의 침탈과 자연의 침탈, 인간의 침탈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다. 철로 확보를 위해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도록 강요했으며, 철로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논과 밭 심지어는 선산까지도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침탈당

8) 이인직, 『은세계』, 『한국신소설전집 2』(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85쪽.

9) 최찬식, 『추월쇄』, 앞의 책 39 쪽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철도 건설을 위해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착취당한다.<sup>10)</sup>

문명개화를 전면에 내세운 당대 소설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은폐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의 어두운 그림자는 작품 이면에 내재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살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기존 소설에서는 물이 자살의 장소로 자주 등장했다면 기차를 자살의 도구로 생각하게 된 점은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무슨 불측한 일이 있을는지 알 수도 없고, 설혹 아무 일이 없기로 무엇에 마음을 만나던지 험한 석간을 만나거던 이 창문으로 눈 딱 감고 한 번만 뛰어내렸으면 그 자리에서 죽사를 하여 세상만사를 다 잊을 터이다.<sup>11)</sup>

그 말이 마치지 못하여 기차 하나가 풍우같이 몰려 오는데, 옥남이가 언덕 위에 도사리고 섰다가 눈을 꼭 감고 철로를 내려 뛰니, 옥순이가 따라서 철도에 떨어지는데, 웬 사람이 언덕 아래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나, 그 사람이 언덕에 올라올 동안에 살같이 빠른 기차는 벌써 그 언덕 앞을 지나간다.<sup>12)</sup>

기차는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의 경이로운 모습에 찬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죽음을 발견한 것이다. 기차가 지닌 이중성, 곧 무지갯빛 꿈의 실현과 그 이면에 내재된 파괴적 모습은 바로 근대의 이중적 모습이기도 하다. 근대 이후 우리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길항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거니와 이 시기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근대가 지닌 두 얼굴을 최초로 경험하게 한 매체였다.

## 2. 속신과 전근대적 자연관

근대 문명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었지만 당대 현실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려는 저항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한결같이 근대를 찬양하며 의식적으로 개화를 강조한 당시 소설들에서조차 전근대적 사유는 쉽게 발견된다. 그 중에서 생태적 측면과 관련한 것으로는 속신을 들 수 있다.

10)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292-295쪽 참조.

11) 이해조, 『홍도화』, 앞의 책, 220-221쪽.

12) 이인직, 『은세계』, 앞의 책, 72-73쪽.

속신은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예컨대 아침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예고하고 저녁 까치는 불길한 사건의 전조로 이해된다. 속신은 오랜 시간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 속에는 각 민족의 문화나 전통,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속신을 연구해보면 그 사회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속신에 자연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인간과 자연이 친연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개화기 소설에도 자연과 인간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속신이 자주 등장하는데, 속신은 때로 작품의 중심 모티프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서창에 지는 해가 눈이 부시도록 비추었는데, 창 밖에 지나가는 그림자는 날아드는 저녁 까치라. 서창을 마주앉아 꼬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주둥이를 딱딱 벌리면서, ‘깹깹, 깹깹깹’ 깹기늘 구기 잘하기로는 장안 여편네 중 제일 가는 전동 김승지의 부인이 시앗이니 무엇이니 하고 지향을 못 하는 중에, 저녁 까치 소리를 듣고 근심이 비쩍 늘었더라.

(부인)“에그, 저 장정맞은 저녁 까치는 왜 남의 창밖에 와서 깹누. 저녁의 저녁 까치가 깹으면, 기어이 고약한 일이 생기더라. 내가 처음에 시앗 보았다는 소문을 들던 날도 똑 요만 때에 까치 한 마리가 저기 앉아서 깹더니, 춘천집인가 무엇인가 그 못된 년이 생겼지. 애 점순아, 어서 나가서 저 까치 좀 쫓아다구.…… (중략)”<sup>13)</sup>

인간에 새벽되는 소식을 전하려고 부상 삼백 척에 꼬끼오 우는 것은 듣기 좋은 수탉 우는 소리라.

그 소리 한마디에 인간에 있는 닭이 날날이 따라 온다.……중략……전동 사는 김승지는 조상을 잘 떠메고 운수 좋게 잘 지내던 사람이라. 김승지 집 안뜰 아래 구양문 위에 닭의 똬가 매였는데, 만호장안에서 꼬끼오 소리가 나면 김승지 지에서는 암탉이 똬를 툭툭 치며 꺽꺽 소리가 나니, 온 집안에서 암탉 온다고 수군거린다

세상에 구기 잘하기로는 남에게 둘째 가지 않던 집이라. 사흘 밤을 암탉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이 망하느니 흥하느니 하는 공론이 부산하다.……중략…… 작은돌이가 햇닭을 잡아 죽이는데 짐승의 소릴지라도 밤중에 닭 잡는 소리같이 쓸쓸한 소리는 없다.

그 소리 한마디에 온 집안사람이 소름이 쭈뼛 끼치더니 뜻밖의 일이 많이 생기더라.<sup>14)</sup>

“네 목소리 반갑구나. 까치가 영물이다. 오늘 아침에 반기더니…….”<sup>15)</sup>

13) 이인직, 「귀의 성(상)」, 『한국신소설전집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23쪽.

14) 위의 책, 139-140쪽

15) 위의 책, 150쪽.

“깟깟.”  
 소리가 나며 까치 한 마리가 황혼에 어두운 빛을 띠고 날아오더니, 오동나무 늘어  
 진 가지에 앉아서 송도집을 내려다보며,  
 “깟깟깟”  
 송도집은 시름이 없이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오동나무를 치어다보며,  
 “저 방정맞은 까치가 왜 저녁에 와서 깟어, 슈어 슈어.”  
 그 까치가 펄적 날아가다가 도로 그 자리에 와서 앉으며,  
 “깟깟깟”  
 설새없이 깟는지라. 송도집이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모래 한 줍을 듬뿍 쥐어 획 뿌  
 리며,  
 “슈어.”  
 그 까치가 그제야 쫓기어 가는지라. 방으로 들어앉아서 혼잣말로,  
 “에그 이상도 하지, 그년의 까치가 왜 자꾸 와서 깟을까. 저녁 까치가 깟으면 흥하  
 다니, 무슨 흥한 일이 나려고 그리한구. 에그, 남의 첩 노릇을 하면서 속을 알뜰히 썩  
 이고 살면 무엇하게. 진작 죽는 것이 상팔자이지.”<sup>16)</sup>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저녁 까치와 아침 까치 그리고 암탉과 관련한 속신은 다  
 음 사건을 예비하는 복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속신은 그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지니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품 속에  
 서 강한 구속력을 지닌 채 나타난다. 근대를 계몽하는 데 선두에 섰던 신소설이  
 속신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  
 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과 합리를 내세운 근대적 관점에서 볼 때 속신은  
 지양되어야 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  
 대 사람들의 의식은 근대를 지향했으나 무의식은 여전히 전근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계몽을 선도했던 사람들조차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서구의 근  
 대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우리의 전통적 사유에 지배  
 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전통적 사유를 이어받았으  
 나 서양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양자의 괴리와 상충을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  
 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문화는 우리의 의식을 상당 부분 변화시켰  
 지만 무의식까지는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생태학적 상상력의 문학적 형상화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인

16) 김교제, 『치악산(하)』, 『한국신소설전집 3』(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41쪽.

간은 주체의 자리에,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물은 객체의 자리에 놓이기 쉽다. 자기 의식(self consciousness)이 있는 한 인간이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의 위치를 이동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주객의 위치 이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켜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

문학에서 주체와 객체의 자리이동을 도모하는 양식이 우화이다. 이것은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객체의 위치에 있던 자연물의 주체로의 이동은 그들 본연의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객체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지만, 주체의 자리로 이동했을 때 이들이 지닌 내재적 가치는 비로소 회복된다. 대상을 위치 이동시키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자와 타자적 존재의 고귀함을 알게 하고 그것의 관점, 가치, 언어를 배우게”<sup>17)</sup>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주목할 만한 소설이다. 토론체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우화 형식을 빌어 당대의 모순되고 부패한 사회 현실을 고발한다.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 삶을 관찰함으로써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이로써 인간의 삶이 객관적으로 형상화된다.

회장으로 보이는 듯한 동물의 말은 오늘날 심층생태론의 두 가지의 중심 원리인 자아실현(self realization)과 생명중심적 평등성(biocentric equality)을 잘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목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다 귀하고 천한 분별이 없은즉,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할 이치가 있으리오. 다 각각 천지의 기운을 타고 생겨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인즉, 다 각기 천지 본래의 이치만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본분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제 몸의 행복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니,……(중략)…… 여러분은 금수라 초목이라 하여 사람보다 천하다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여 기는 자는 기고, 나는 자는 날고, 굴에서 사는 자는 깃들임을 침노치 아니하며, 깃들인 자는 굴을 빼앗지 아니하고, 봄에 생겨서 가을에 죽으며,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천지 이치대로 행하여 정도에 어김이 없은즉, 지금 여러분 금수, 초목과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사람이 도리어 낮고 천하며, 여러분이 도리어 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소. 사람들이 이같이 제 자격을 잃고도 거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만물 중에 제가 가장 귀하다, 높다, 신령하다 하여 우리 족속 여러분들을 멸시하니 우리가 어찌 그 횡포를 받으리오.<sup>18)</sup>

17)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민음사, 1994), 362쪽.

18)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3』(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80-281쪽.

심층생태론에서 말하는 ‘자아실현’은 ‘우주라는 큰 자아 속에 편입된 작은 자아인 자신(self in Self)’을 의미한다. 이것은 편협하고 고립된 경쟁적 예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인간됨을 넘어서 비인간 세계와의 동일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언하면 자아실현이란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유기적 전체라 할 우주 속에서 자신을 성숙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층생태론의 또 다른 원리인 생명 중심적 평등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생명 중심적 평등성은 생물권 안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고 번영하는 데에 있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자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권리를 지닌다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전체와 유기적 상호 관련을 맺은 생태계 안에서 모든 유기체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다만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존재이며 생명을 지닌 존재 모두가 공경의 대상이 된다.<sup>19)</sup>

이렇게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에 충실히 임하는 동물의 모습은 그들 나름의 자아를 실현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기는 자는 기고, 나는 자는 날고, 굴에서 사는 자는 것들임을 침노치 아니하며, 것들인 자는 굴을 빼앗지 아니하고, 봄에 생겨서 가을에 죽으며,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 “다 각기 천지 본래의 이치만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본분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제 몸의 행복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그들은 곧 우주라는 큰 자아 속에 편입된 작은 자아인 자신(self in Self)’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삶과 대조적인 양상을 띤다. “폐악한 일이 있으면 천히 여겨 금수 같은 행위라 하며, 사람이 만일 어리석고 하는 일이 없으면 초목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물건이라 욕하”면서도 오히려 인간은 유기적 전체인 큰 자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욕심이나 집착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등은 각각 자신들과 관계있는 반포지효(反哺之孝), 호가호위(狐假虎威), 정와어해(井蛙語海), 구밀복검(口蜜腹劍), 무장공자(無腸公子), 영영지극(營營之極),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쌍거쌍래(雙去雙來) 등을 들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특히 벌과 호랑이의 발언에는 묵묵히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인간의 삶이 잘 대비되어 나타난다.

19)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Gibbs Smith Publisher, 1985), pp.66-67 참조.

우리 입의 꿀은 남을 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 배의 칼은 공연히 쓰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하는 때에 정당방위로 쓰는 칼이요, 사람같이 입으로는 꿀같이 말을 달게 하고 배에는 칼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가 아니요. 또 우리의 입은 항상 꿀만 있으면 사람의 입은 변화가 무쌍하여 꿀같이 단 때도 있고, 고추같이 매운 때도 있고, 칼같이 날카로운 때도 있고, 비상같이 독한 때도 있어서, 맞대하였을 때에는 꿀을 들어붓는 것 같이 달게 말하다가 돌아서면 흉보고, 욕하고, 노여워하고, 악담하며, 좋아지낼 때에는 깨소금 향아리같이 고소하고 맛있게 수작하다가, 조금만 미흡한 일이 있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무성포가 있으면 곧 놓아 죽이려 하니 그런 악독한 것이 어디 또 있으리오.<sup>20)</sup>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당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육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 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하기를,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제물을 빼앗으며 죄 없는 백성을 감옥서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 놓고 세 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사전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용사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종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밑천을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 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 만 배가 될는지 알 수 없소.<sup>21)</sup>

이중적인 사람을 벌에 빗대거나 포악한 사람을 호랑이에 비유하지만 이것은 인간 중심적 생각이다. 벌은 생존을 위해 꿀도 만들고 침도 있는 것이며, 호랑이가 살육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채우려는 행위이다. 이에 비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조건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파괴한다. 또한 과도한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야기한다. 인간의 행위가 동물의 삶에 조명됨으로써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삶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동물을 대상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이동시킬 때 인간만이 주체라고 간주했던 기존의 가치관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으며 실상은 하찮게 여겼던 동물에 미치지 못

20) 안국선, 『금수회의록』, 앞의 책, 206쪽.

21) 위의 책, 302쪽.

한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괴상하고 부끄럽고 절통 분하여 열었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정신없”게 할 정도의 충격을 수반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하나 현하지변을 가지고도 쓸 데가 없”는 당위성을 지니는 생각이다 까마귀의 다음 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관적인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은 우리 소리를 듣고 흉한 정조라 길한 정조라 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 사람의 일이 흉하든지 길하든지 우리가 울 일이 무엇 있소? 그것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좋지 아니한 때에 흉하게 듣고 하는 말로다.....중략.....무슨 소리든지 사람이 근심 있을 때에 들으면 흉조로 듣고, 좋은 일 있을 때에 들으면 상서롭게 듣는 것이라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니요,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듣는 저희에게 있는 것이요,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까마귀는 흉한 일이 생길 때에 와서 우는 것이라 하여 듣기 싫어하니, 사람들은 이렇듯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 책망하여 무엇하겠소.”<sup>22)</sup>

생명을 지닌 존재는 똑같이 소중하다. 또한 어떤 생명체든지 자연의 본성과 이치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한 생명체에 대해 이롭다거나 해롭다는 가치 판단은 따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생명체의 가치를 평가한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며 생명체의 가치를 저울질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까마귀를 가지고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흉조, 또는 길조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맹점을 인간 주체와 동물 객체의 위치 이동을 통해 보여준다. 인간 쪽에 편향되어 한 면만을 보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한 쪽을 동물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감각으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비록 동물로의 관점 이동에는 당대 정치 현실을 풍자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소설 전반에는 생태론적 원리가 무르녹아 있다. 개화기라는 과도적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생태적 삶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점이야말로 이 소설이 지닌 생태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22) 위의 책, 285-286쪽

### Ⅲ. 결 론

생태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구에서 유입된 생태론은 우리의 전통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근대 지향 일변도로 살아온 우리에게 그동안 망각하고 있던 우리의 오랜 전통적 가치를 환기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유입된 생태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서구의 근대적 방법론이 우리 문학연구에 도움을 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태문학 연구마저 서구의 이론에 기대는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과 연계하여 한국 문학을 재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전근대와 근대의 접점이라 할 개화기 소설을 텍스트로 삼아 여기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100여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문학의 연속성을 복원하는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개화기에 시작된 자연관의 변모는 근대의 상징이라 할 기차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자연의 질서를 가로지르는 기차의 속도감은 자연과의 조화로우름 도모해온 당대 사람들에게 도구적 이성의 위력을 실감시키고 이로써 인간/자연이라는 근대적 자연관을 형성시킨다. 하지만 비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속신이 개화기 소설의 주된 배경이나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근대 지향적 의식 세계의 이면에는 여전히 전통적 사고가 잔재함을 살필 수 있다.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 지향적 의식 세계와 전근대적 무의식 세계의 공존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잔존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양 사상의 전통을 지닌 채 근대 문명 속에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양자의 사상적 괴리와 상충의 뿌리가 개화기로부터 연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대를 지향한 100여년의 시간 속에서 이들의 상충은 갈수록 약해졌지만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외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근대 체험이었던 만큼 우리의 삶은 아직도 양자의 길항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수회의록>에 담긴 생태적 인식은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 받을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오늘날 특별히 돋보인다. 소설 전편에 흐르는 자아실현과 생명중심적 평등성과 같은 생태적 원리는 개화기나 지금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회복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생태적 기능자에 의해 전통과 근대를 계기적 관점에서 고찰하려 한 본고의 시도는 근대 지향 일변도 속에서 전통과 근대가 분리된 채 진행되어온 그간의 연구

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나 산업화 이후의 작품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생태문학 연구의 폭을 심화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생태문학, 생태문학론, 일원론적 세계관, 근대적 자연관, 전통적 자연관, 심층생태론, 자아실현(self realization), 생명중심적 평등성(biocentric equality)

K C I

< 참고 문헌 >

1. 자료

한국신소설전집(10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 논저

- 곽경숙,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연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12, 53-77.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를 심는 사람, 2003.
- \_\_\_\_\_,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2000.
-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김찬기, 『한국 근대문학과 전통』, 국학자료원, 2002.
-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북스, 2002.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들레개, 1999.
-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 신명직,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 역사문제연구소,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비평사, 2001.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 한면희, 『환경윤리』, 철학과현실사, 1997.
- 프리츠포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김용정 옮김, 범양사, 1989.
- \_\_\_\_\_, 『생명의 그물』, 김용정·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 머레이 북친, 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 숲, 1997.
-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1985.
- Naess, Arne. "Self-Realization :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 *The Deep Ecology Movement*. ed. by Alan Dregson & Yunichi Inoue. North Atlantic Books, 1995.

[Abstract]

## Natural Consciousness in the Novels of Civilization Era

Kwak Kyungsook

The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part of global talk that now dominates. We are in the midst of a global crisis that heralds a paradigm shift to a socially harmonious and ecological era. Though the ecological theory which appears to overcome an environment crisis comes from western countri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rooted in oriental spirit. The attitude that restricts the category of ecological literature only after industrialization should be avoided.

This study reviews 20th century's Korean literatures from ec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at enlarging the research boundary of ecological literature study. This study want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reviewing Korean literature history by using continual viewpoint.

For this purpose the writer reviews the novels of civilization era from ecological viewpoint. Especially through the change of natural consciousness which appears in the novels, the writer researches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thought which conflicts with western thought. As a result, the natural consciousness in the civilization era's novel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Fist type is the modern oriented natural consciousness. With the appearance of scientific reason the natural consciousness which harmonious with traditional thought is challenged. With the admiration about the train which is emblem of scientific civilization, our traditional nature consciousness changes slowly.

Second type is pre modern natural consciousness which remains in the folklore. Inflowing of modern civilization, Korean people shows the modern oriented attitude but didn't get out of pre modern worldview. Much folklore used in the novels of civilization era shows this. Folklore is the pre modern thought that has no self evident basis. Nevertheless, the new style novels which enlighten the people used

folklore. This shows that the people were influenced by traditional worldview.

Third type is harmonious symbiotic consciousness between nature and human. Novel 'Geumsu Hoieurok' is well expressed literary work of ecological imagination. In this novel, ecological principles like self realization and ecocentric equality give us meaningful implication until now as well as pre modern era. These give us two lessons.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human life is that recovering the understanding that all life is meaningful like human being. Second, being faithful to the original nature following the nature's principles is the best life style.

Until now, modern novels and traditional are studied separately. This study tried to review traditional novels as well as a modern by using continual viewpoint.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researches hitherto unexplored to Korean literature society. This study helps the researchers to overcome the research methodology because of discontinua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And this study contributes enlarging the research boundary of ecological literature studies hitherto limited only after civilization.

**key words** : ecological literature, modern oriented natural consciousness, traditional natural consciousness, ecological imagination, deep ecology, continual viewpoint, self realization, biocentric equality

곽 경 숙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4  
새한아파트 107동 1302호  
ht153@hanmail.net